

# 신형인데 낯익네?... 폴더블폰 가격에 성능은 다소 '평범'

## 애플 '아이폰13' 공개

A15 바이오닉칩 탑재해 속도 UP  
가격 최고 217만원 여전히 '고기'  
디자인·기능 등에 큰 변화는 없어  
글로벌 24일 출시... 국내는 내달

애플 아이폰13이 공개됐다. 가격이  
폴더블폰 수준으로 책정됐지만, 성능  
개선 외에는 그렇다할 변화를 찾기 어  
려웠다.

애플은 14일(현지시간) 미국 캘리포  
니아 애플파크에서 온라인으로 신제품  
발표회를 열고 아이폰 13 시리즈를 공  
개했다.

아이폰 13 역시 12 시리즈와 같이 미니와  
아이폰 13, 프로와 프로맥스 등 4개 모델  
로 구성됐다.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  
서(AP)인 A15 바이오닉을 탑재했다.

가격은 아이폰 13 미니 128GB가 95  
만원부터 시작해 아이폰 13 프로맥스 1  
TB 217만원까지다. 처음으로 전작과  
똑같이 책정됐지만, 여전히 비싼편으  
로, 갤럭시 Z 시리즈 수준에 달한다.

구체적으로 아이폰 13 프로맥스 512  
GB는 190만원이다. 갤럭시 Z 폴드3 512



아이폰 13 프로

/애플

GB(209만7700원)에 근접한다. 아이폰  
13 256GB도 123만원으로 갤럭시 Z 폴드3  
(256GB, 125만4000원)과 어깨를 나란  
히 한다. 바형 스마트폰이 폴더블폰과  
비슷한 셈. 미니가 갤럭시 S21보다 다  
소 저렴하지만, 5.4형 디스플레이에 듀  
얼 카메라 등 사실상 A 시리즈 등 보급  
형 시장을 겨냥한다.

애플은 아이폰13 성능에 분명한 자신  
감을 내비쳤다. 경쟁 모델과 AP 격차가  
2년 이상 벌어졌으며, A15 바이오닉이  
경쟁 제품 대비 50% 빠르다고 설명한

것. 전작 대비 배터리 효율도 높였다. 1  
일 사용시간을 최대 2시간 30분 늘렸다는  
게 애플 주장이다.

카메라 기능도 개선했다. 전작보다  
빛을 50% 가량 많이 포착할 수 있는 센  
서를 장착하고, 자동 초점 변경을 활용  
한 '시네마틱 모드'를 도입해 전문적인  
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도록 했다.

그러나 이마저도 더이상 특별하지는  
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. 이미 AP 성  
능이 상향 평준화돼 일부 마니아를 제  
외하고는 애플 AP를 필요로 하지 않는



팀 쿡 애플 CEO가 14일(현지시간) 미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온라인 행사로 신제품  
발표회를 열고 화상을 통해 아이폰13을 소개하고 있다.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된 아이폰13 시  
리즈는 '아이폰13(6.1인치)'을 비롯해 '아이폰13 미니(5.4인치)', '아이폰13 프로(6.1인치)', '아  
이폰13 프로 맥스(6.7인치)' 등 4가지 모델로 구성됐다. /뉴시스

데다가, 다른 부분에서는 별다른 개선  
점을 보이지 못해서다.

외관은 전작과 거의 같다. 아이폰13  
과 미니의 후면 카메라 배치만 대각선  
으로 바꿨다. 노치를 20% 줄이긴 했지  
만, 갤럭시 시리즈가 이미 여러차례 편  
지출 디스플레이를 도입했고, Z 폴드3  
는 언더디스플레이카메라(UDC)까지  
도입했음을 감안하면 적지 않게 뒤떨어  
져있다. 색상도 특별할 게 없다는 분위  
기, 오히려 갤럭시가 꾸준히 내놓던 핑  
크를 전면엔 내세웠다.

슈퍼 레티나 XDR 워드 프로모션 디  
스플레이가 주시율을 10~120Hz까지 조  
정해 성능을 높이면서 효율을 극대화한  
다는 설명이지만, 삼성디스플레이에서  
개발해 이미 갤럭시에도 도입한 바 있  
다. 새로 탑재될 것으로 기대됐던 기능  
도 없다. 저궤도 위성통신이나 지문인  
식을 이용한 터치 ID 등이다.

한편 한국 시장은 이번에도 '찬밥'이  
다. 글로벌 출시는 24일, 국내 출시는 다  
음달 8일로 2주나 늦다.

/김재용 기자 juk@metroseoul.co.kr

## '한가위 상생'... 기업들,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

### 삼성전자·LG·현대차 이어 태광산업·르노삼성 등 동참 협력사 운영 부담 완화 취지

국내 기업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 
협력사에 납품대금 조기 지급에 잇따라  
동참하고 있다. 코로나19 장기화로 어  
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자금 운용  
을 돕기 위함이다.

지난주 삼성, LG, 현대차그룹 등 주  
요 그룹이 협력사들의 납품 대금 지급  
을 발표한 가운데 태광산업과 르노삼성  
자동차 등도 협력사 부담 줄이기에 나  
서고 있다.

15일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추석  
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 
약 300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조기 지  
급한다. 이번 지급은 400여개의 중소 협  
력사를 대상으로 지급일보다 15일 앞서  
진행된다. 이번 조기 집행은 코로나19  
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심각한

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 
대한 상생협력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  
다. 협력사 조기 지급은 지난해 추석 명  
절을 시작으로 올해 설 명절을 포함해  
세 번째다.

르노삼성은 추석 연휴를 앞둔 17일  
중소 부품협력사에 물품대금 약 120억  
원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. 이번 물품  
대금 조기 지급은 명절을 앞두고 자금 소  
요가 집중되는 중소 협력사들의 운영 부  
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. 조  
기 지급 대상은 78개 협력사이며 예정된  
지급일보다 최대 8일 일찍 대금을 받게  
된다.

르노삼성은 올해 1월 설 명절을 앞두  
고도 72개사 협력사에 약 176억원, 지난  
해 추석에도 명절을 앞두고 82개 협력사  
에 약 68억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.

앞서 삼성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  
디스플레이, 삼성전기, 삼성SDI, 삼성  
SDS, 삼성바이오로직스, 삼성바이오

에피스, 삼성물산, 삼성엔지니어링, 제  
일기획, 에스원, 삼성웰스토리 등 12개  
삼성 관계사가 총 8000억원 규모의 물  
품 대금을 일주일 이상 앞당겨 조기 지  
급한다고 발표했다.

LG그룹도 LG전자·LG화학·LG유  
플러스를 비롯한 8개 계열사가 6200억  
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.

현대자동차그룹은 협력업체 납품대  
금 1조2354억원을 추석 연휴 전 지급키  
로 했다. 현대차·기아·현대모비스·현대  
건설·현대글로벌비스 등에 부품 및 원자  
재,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000여개 협  
력사가 대상이다.

업계 관계자는 "코로나19 장기화로  
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협력사들의  
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"  
이라며 "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 및 상  
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할 것"  
이라고 말했다.

/양성운 기자 ysw@



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

/삼성전자

## 손 대면 '활짝'... 비스포크 냉장고 신제품

### 삼성전자 '자동 문열림' 기능 적용

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가 더 커지고  
깔끔해졌다.

삼성전자는 15일 비스포크 냉장고 1  
도어 신제품을 출시했다. 냉장과 냉동,  
김치와 변온 등 4개 종류다.

이번 신제품은 내부 용적을 늘려 용  
량을 최대 29L 키웠다. 변온과 김치 냉  
장고는 온도를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

있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. 메  
탈쿨링과 멀티 냉각시스템 등 기술로  
냉각 성능도 높였다.

'자동 문열림' 기능으로 디자인도 간  
소화했다. 도어 손잡이 대신 센서를 탑  
재해 손만 갖다 대면 문을 자동으로 열  
수 있다. 색상은 22가지 기본 색상에 더  
해 360개 색상으로 구성한 '프리즘 컬  
러'에서 나만의 컬러를 선택할 수도 있  
다. /김재용 기자

## LG전자, 비대면 교육 최적화 '웨일북'

### 네이버 웨일 스페이스 탑재

LG전자가 웨일북 생태계를 확대한  
다.

LG전자는 네이버 웨일 OS로 구동되  
는 웨일북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.

LG전자는 올 초 네이버와 '스마트  
교육 사업 협력'을 위한 MOU를 체결  
하고 웨일북을 공동 개발해왔다. 코로  
나 19로 인해 증가한 언택트 교육 시대  
를 맞아 양사가 갖추고 있는 교육 소프



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유통 시장  
에서의 역량을 통해 스마트 교육을 확  
산해 나간다는 취지다. /김재용 기자

이번 웨일북도 네이버 교육 플랫폼  
웨일스페이스를 탑재해 최적의 비대면  
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  
다. 빠른 부팅과 통합 서비스 제공은 물  
론, 비대면 수업시 원격관리를 통해 수  
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.

무게도 1.45kg에 불과하다. 화면 크  
기는 14형으로, 웹캠과 내장 마이크도  
탑재했다. 웨일온 단축키도 탑재해 학  
습 참여 편의도 높였다.

LG전자는 이 제품을 오는 10월 B2B  
시장에 선보이고, 이후에는 B2C로도  
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. 신제품의 출  
고가는 55만 원이다. /김재용 기자

## 삼성전자, '갤 워치4 골프 에디션' 출시

갤럭시 워치4가 골프 캐디로 변신한  
다.

삼성전자는 15일 '갤럭시 워치4 골프  
에디션(사진)'을 국내에 출시했다.

이 제품은 '스마트 캐디' 앱을 통해  
국내 골프 코스를 대상으로 고저차와  
그린 언도레이션(높낮이) 정보를 반영  
한 섬세한 거리 측정 기능을 제공한다.  
아울러 실측과 위성지도, 항공사진



기반의 전세계 4만  
여 개의 골프 코스  
데이터, 그린 거리  
와 샷이력 확인 등

을 통한 코스 공략 가이드, 홀 정보 자동  
인식도 가능하다.

가격은 44mm 32만9000원, 40mm  
29만9000원이다. 각각 블랙과 실버 색  
상으로 출시된다. /김재용 기자